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Summer
2024 Vol. 68

한국에 살아요

글로벌 법률전문가
중국 출신 김응걸 외국변호사

현장특독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출입국 사람들

출입국 스포츠맨들의 모임
저스티스 & 화보FC

한국생활 사랑방

안전한 한국 생활을 위한 첫걸음,
소방안전 교육



KOREA

IMMIGRATION



SERVIC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공
존
하
는

시
선



작가명 : NGUYEN NGOC TUONG VAN
작품명 :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2024년 공존 <봄호> '공존하는 시선'
사진공모전 당선작



2017년 처음
한국을 여행하면서 이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지만
결국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미래를 걸어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작은 손에
희망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밝고 희망찬 미래는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미래를 고민하며 꿈꾸는 일, 공존입니다.



공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눈부신 태양과 싱그러운 녹음이 어우러지는 계절이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열심히 달려온 지금,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시원한 바람이 반겨주는 휴양지를 찾아 여름날의 추억을 남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본부는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조화로운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5월 20일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0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한 약 60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석하여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를 담은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울러 이민 행정 주무부처로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을 위해 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과 정책추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민 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 수립 등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산업 현장의 외국인력 수요 급증에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가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처하고자 '24년 제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24. 4. 15.~ 6. 30.)을 실시하여 '24. 6월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23. 10월 대비 약 1.5만 명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본부는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함께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균형 잡힌 출입국·이민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공존 독자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울 때인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ear readers,

The season of radiant sunshine and lush greenery has arrived. With half the year behind us, why not take a break from your daily routine, find a holiday destination with a refreshing cool breeze, and make wonderful summer memories?

On May 20, we hosted the 17th 'Together Day,' an annual celebration aimed at fostering a harmonious social environment where diversity is cherished. Under the slogan "Warm Companionship, Happiness for All," we welcomed around 600 attendees from both home and abroad to this year's ceremony, including diplomatic envoys from 20 countries. The occasion featured exciting performances and events that united everyone present under the shared message of harmony and mutual prosperity.

We,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KIS), are playing a leading role in managing immigration policies and have quickly embraced the global trend of using data in policy formulation. This has led to the recent introduction of online data analysis and visualizations, offering a clear overview of foreign residents by region and the current immigration policies in effect. We are actively working to diversify our big data analysis models to create region-specific policies and find ways to make life easier and more convenient for foreign residents.

On another note, as we continuously respond to the rapidly growing demand for foreign workers across various industries due to the shrinking working-age population, we are making every effort to combat legal violations that threaten public safety, such as crimes involving foreigners and brokers facilitating illegal activities. We launched the first round of this year's pan-government crackdown on illegal migrants, which took place from April 15 to June 30. This joint effort significantly reduced the number of undocumented migrants, with a notable decrease of approximately 15,000 compared to October of last year.

The KIS remains committed to balanced immigration policies that aim to uphold the legal order while fostering social integration, ultimately leading a global effort toward mutual prosperity that transcends nationalities.

Please take good care of your health especially during this time of the year when prolonged hot weather can easily cause physical and mental exhaustion.

Thank you.

Contents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4. Summer / Vol. 68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immigration.kr
유튜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카카오 채널
http://pf.kakao.com/_gxbpPT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발행일 2024년 7월
발행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전화번호 02-2110-4019
기획·편집·디자인 이루다플래닛(주) 1566-7699



www.immigration.go.kr
웹진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06

한국에 살아요

글로벌 법률전문가
중국 출신 김응걸 외국변호사

10

출입국 돋보기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 우수 인재 유치 전략

14

현장 특특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06



Place +

18

출입국 사람들

출입국 스포츠맨들의 모임
저스티스 & 화보FC

22

마이 코리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꿈꿔요
이두연 주무관

24

출입국 인포

이민 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 제공

26

KIS News

Play +

28

한국생활 사랑방

안전한 한국 생활을 위한 첫걸음,
소방안전 교육

32

풍경속으로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훈이 깃든 역사 마을
광주 고려인마을

36

내 손안의 KIS

내 손 안의 KIS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SNS 소식

37

출입국 엽서

'KIS 1345' 로 물어보세요!

38

EVENT

사진 공모 & 공감 & 퀴즈 타임

18



28





국경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
활약하는
글로벌 법률 전문가

중국 출신

김응걸 외국변호사





조선족(한국계 중국동포)은 한민족 혈통을 지닌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이다.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에서 여전히 심리적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역량을 발휘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많은 중국 동포가 있다. 국내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중형무진 활약하고 있는 김응걸 외국변호사도 그중 한 명이다. 10년 가까이 한국 생활을 하며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타지에서 법률 전문가로 굳건히 입지를 다져온 김응걸 외국변호사를 만나 부드러운 이미지 이면에 숨겨진 강인한 열정으로 이루어 낸 그의 한국 정착기를 들어본다.

Jin, Yingjie

다시 찾은 고향 같은 그곳, 한국

올해는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재외동포법>이 제정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수많은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해 온 재외동포법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재외국민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동포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국내 굴지의 로펌 중 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응걸 외국변호사 역시 재외동포법의 배려를 톡톡히 받은 사람이다. 벌써 9년째,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비자나 체류 문제로 크게 고민한 적이 없다고 한다.

2011년 설연휴를 맞아 부모님을 뵙기위해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는 김응걸 외국변호사. 외국을 방문한다는 설렘을 가득 안고 도착한 한국이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정겹고 편안한 느낌에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일단 말이 잘 통하니까 외국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세련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와 달리 친숙함과 편안함이 느껴져 오래전에 떠나는 고향을 방문한 느낌이었습니다. 이후로도 가족여행이나 어머니 환갑 잔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여 즐겁게 지냈어요.”

윤동주 시인이 태어난 길림성 용정시 출신인 김응걸 외국변호사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을 지켜보며 변호사를 꿈꿨다. 건축관련 사업을 하였던 아버지는 당시 법률 지식에 익숙하지 못해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잦았다. 아버지처럼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북경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다. 이후, 중국 주재 한국 대기업에서 사내 변호사로 근무했고 2015년 지금의 한국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게 되었다. 벌써 9년 전 일이지만 김응걸 외국변호사는 서울에 위치한 법률회사로 처음 출근하던 당시의 기억이 생생하다. “중국과 다른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첫 출근에 대한 긴장감도 느꼈습니다. 새로 적응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한국어에 능통했기에 예상보다 수월하게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다. 서울의 활기찬 분위기가 좋았고 편의시설도 마음에 들었다. 조금만 걸어가면 각종 공연과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어 문화생활을 쉽게 즐길 수 있었고, 신용만 있으면 다양한 금융 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문화 수출 강국이라는 지위에 걸맞게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대한 큰 거부감이 없었다. “어디를 가든 친절하고 상냥하게 맞아주어 친구들을 금방 사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직장에서도 쉽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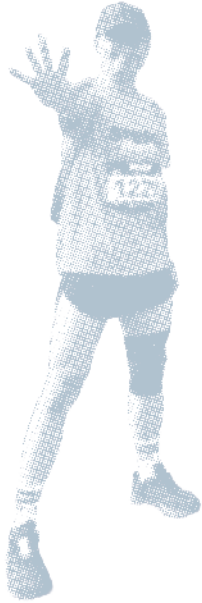
성장의 버팀목이 되어 준 고마운 사람들

김응걸 외국변호사는 한국 진출을 계획하거나 이미 한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변호사들과 함께 각종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중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여 봉착하게 되는 여러 애로사항을 다루고 외국인 투자, 인수합병, 비자, 규제, 분쟁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고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잘 알고 있는 김응걸 외국변호사도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녹록하지만은 않았다고 회고한다.

“중국은 법률시장이 비교적 늦게 개방되어서 지역마다 법률 시장의 편차가 큰 편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지역에 따른 법률 서비스 차이가 크지 않아요. 게다가 변호사 각각의 업무가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서 전문성이 강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업무를 대하는 태도나 소통 방식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중국은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모호한 편이다. 어떤 연락이든 신속하게 답변하고 결정해 주기를 원하기에 채팅이나 전화 등 실시간 소통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한국은 예전과 달리 업무 시간과 업무 외 시간을 명백히 구분하고자 하는 분위기라 업무 관련 내용은 메일이나 문자로 소통하는 것을 선호한다. 양국의 업무 처리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응하기까지 김응걸 외국변호사 역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고마운 분들이 있다. 먼저 한국에 들어와 정착한 1세대 동포 중국 변호사 선배들이다.

김응걸 외국변호사가 새로운 기업문화에 적응하며 많은 업무를 감당해야 했던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한강을 같이 걸으면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선배도 있다.






두 국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김응걸 외국변호사. 그는 지난 9년간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많은 분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신이 받은 배려와 도움을 두 배 이상으로 돌려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에서는 주말에 직장 선배나 상사와 함께 한강 걷기를 한다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 아니냐며 농담 섞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직장 상사와 친해져 가족처럼 돈독하게 지내는 일이 흔해요. 선배님들이 업무 상 고민이나 진로에 대해서도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가교 역할에 충실할 것

사실 처음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가장 크게 걱정했던 부분은 중국 동포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 인식이었다. 대다수 한국인은 조선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불법적인 일에 종사하거나 거칠고 사나운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것을 김응걸 외국변호사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한국에서 무례한 질문이나 시선을 받은 일이 일절 없다. 설령, 내심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표시하는 사람은 없었다. 김응걸 외국변호사는 이런 인식의 변화에는 한국에 먼저 진출해 기반을 닦아놓은 선배 동포 변호사들의 역할이 크다고 말한다.

“저는 따지고 보면 한국에 진출한 2세대 한국계 중국동포 변호사인 셈인데요. 1세대 선배 변호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조선족도 변호사를 하나와 같은 무례한 질문도 종종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선배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며 성과를 거둔 덕에 이제는 사회적으로 중국 동포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언론이나 TV에서 그러지는 중국 동포의 모습이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의 언어, 문화, 그리고 정서에 익숙한 자신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두 국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김응걸 외국변호사. 그는 지난 9년간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많은 분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신이 받은 배려와 도움을 두 배 이상으로 돌려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수줍게 웃는 그의 모습에서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위유내강의 리더십이 느껴졌다.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 우수 인재 유치 전략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공개한 '2023년 1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인 전년 대비 11.7% 증가한
2,507,584명이었다.

이처럼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이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제도와
 방안이 등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 우수 인재의 유치 및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란?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이후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우수인재 특별귀화 인정 분야

저명인사, 학술 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문화·예술 분야 우수능력자, 스포츠 분야 우수능력자, 국내·외 기업 근무자, 외국인 투자기업 근무자, 신산업·첨단기술 분야 근무자, 신산업·첨단기술·과학 분야 원천기술 보유자,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 전문 분야 특별한 지식 및 기술 보유자, 국제기구 등 근무경력자

우수인재 특별귀화 절차



소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통상 1년이다. 다만, 이는 국적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 기간으로 미비 서류 보완,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으로 인해 소요 기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수인재 인정 여부는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국적심의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장관이 국적법, 이민제도, 과학, 경제 등 전문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국적심의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개최되고 있다.

필요한 서류

1 여권 등 외국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귀화허가 신청서



3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 및 입증 서류

학위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연구과제 참여증명서 등 학력, 경력, 수상 등 실적을 입증하는 자료. 경력 사항이나 연구실적, 수상 경력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신청 분야에서 대한민국에 기여한 내용과 향후 구체적인 국익 기여 가능성을 설명하는 항목도 포함된다.



4 추천서

권한 있는 추천권자의 추천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천권자는 추천받는 사람을 알게 된 경우, 추천받는 사람의 연구실적 등 우수인재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여부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면 되고 신청인은 추천서를 귀화 신청 접수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5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6 수반취득 신청자가 있는 경우 관계 증명 서류



7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 ▶ 정보마당 ▶ 국적/귀화안내

▶ 귀화(일반, 간이, 특별귀화) ▶ 특별귀화(우수인재, 독립유공자)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pecial Naturalization Program for Outstanding Talents



What is the Special Naturalization Program for Outstanding Talents?

The program grants Korean nationality to individuals who excel in fields such as science, economics, culture, and sports, and who are also recognized as having the potential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national interest. It also allows them to retain their original nationality, provided they pledge not to exercise their foreign citizenship while residing in Korea, effectively permitting multiple nationalities.

Outstanding Talents Eligible for Special Naturalization

Individuals who meet one of the following criteria: ▲ Renowned or prominent figures ▲ Exceptional achievements in academic research ▲ Exceptional competence in culture and arts ▲ Outstanding talent in sports ▲ Experiences with Korean or foreign companies ▲ Experiences with foreign-invested companies ▲ Experiences with emerging industries and high-tech fields ▲ Ownership of original technologies in emerging industries, advanced technologies or scientific fields ▲ Possess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Expertise and skills in professional areas ▲ Experience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teps for Special Naturalization

Submit Application ► Attend Naturalization Interview ► Deliberation and Decision by the Nationality Deliberation Committee ► Approval of Naturalization or Reinstatement of Nationality ► Receive Nationality Certificate (Acquire Korean Citizenship) ► Pledge not to exercise foreign nationality in Korea

The entire process typically takes about one year from the date of filing. However, this timeline is an average and can vary depending on individual circumstances, such as missing documents or the need for consultations with relevant agencies.

The Nationality Deliberation Committee assesses the eligibility of each application and determines who qualifies as an outstanding talent. The Committee is chaired by the Vice Minister of Justice. The Minister of Justice appoints individuals with expertise in areas such as nationality law, immigration programs, science, and economics as Committee members. The Committee meets quarterly.



Required Documents

1. A passport or other proof of foreign nationality
2.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3. Detailed description of the Naturalization Application and supporting documents, including ▲ certificates of academic degrees ▲ employment certificates ▲ career certificates ▲ income statements ▲ certificates of participation in research projects ▲ other documents verifying academic background, career experiences, awards, and similar achievements ▲ description of contributions to or potential contributions to national interests
4.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an individual in authority
The recommender should describe how he or she knows the applicant and state which qualifications for special naturalization the applicant meets, including their research achievements. The applicant must submit the recommendation letter to the competent agency in charge of accepting the application.
5. Criminal Record Certificate from the applicant's home country
6. Proof of the relationship with an accompanying applicant, if any
7. Documents necessary for the Family Relation Register



More Info

For further details, please visit "Hi Korea" website (hikorea.go.kr) in the English version. (Information Sharing Corner-> Nationality/ Naturalization-> Special Naturalization [Outstanding Contributor/Talent])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지난 5월 20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이 “따뜻한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Warm Companionship, Happiness for All)”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재한외국인과 국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정된 세계인의 날 기념식 현장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따뜻한 동행과 훈훈한 감동으로 가득했던 기념식 현장을 소개한다.



모두의 잔치가 된 기념식

2008년 제1회 기념식을 시작으로 매년 5월 20일에 개최해 온 세계인의 날 기념식이 올해로 제17회를 맞이하였다. 본격적인 기념식에 앞서 대극장 2층에서는 한국에서 50여 년간 장애인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사회복지법인 성골롬반복지재단 이사장인 라이안 제라딘 수녀님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수여식에서는 특별공로자 국적증서가 동판으로 제작되어 전달되었다. 환한 웃음으로 증서를 받아 든 수녀님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기념식장 입구 야외에서는 총 11개 국가의 다채로운 전통의상을 입을 수 있는 세계 의상 체험 행사와 짧은 시간 안에 나만의 특징을 담아 표현한 개성 넘치는 캐리커처 이벤트가 열려 기념식의 흥을 더욱 돋우었으며, 식후에는 기념품과 함께 달콤한 빵과 찰진 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 기념식이 더욱 풍성하게 느껴졌다.

기념식에는 20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하여 국제이주기구(IOM) 및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 대표, 제1호 특별공로 귀화자인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김병수 김포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60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올해 기념식 사회는 이승현 KBS 아나운서와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이자 방송인 카를로스 고리토 씨가 맡아 워트 넘치는 멘트와 함께 깔꼼한 진행을 선보였다.



한국의 보물을 노래하는 여성 5인조 창작국악 그룹 '비단'이 오프닝 공연을 맡았다. '권주가'와 '한식도락', '아름다운 나라'를 흥겹게 노래한 비단은 판소리와 가요,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공연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기념식은 주제 영상 상영, 박성재 법무부 장관 기념사, 내외빈 축사와 축하 영상, 유공자 포상,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제 영상에서는 사회 곳곳에서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는 재한외국인의 모습이 담겼다. 많은 이에게 동행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린 뜻깊은 시간이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통합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미셸 윈스롭 주한 아일랜드 대사,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기념식의 하이라이트, 유공자 포상

세계인의 날 기념식의 백미는 단연 유공자 포상 수여식이다. 올해도 재한외국인의 정착지원과 사회통합 분야에서 오랫동안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개인과 단체에 총 17점의 포상이 수여되었다.

개인 분야 대통령 표창은 국적증서를 수여 받은 라이안 제라딘 수녀님과 21년간 이민자 정착지원과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 온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이나니 상담팀장이 수상했다. 단체 분야 대통령 표창은 2001년 개소 이래 22년간 외국인 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권익 향상에 기여한 서울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가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임정자 신길셋별작은도서관 강사, 조연화 단양여성취업지원센터장 등 개인 4명,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 등 단체 3곳에 수여되었다. 법무부장관 표창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민자네트워크 와타나베 아쓰코 회장, 수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민자네트워크 카미로바 서희다훈 회장 등 개인 5명과 단체 2곳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어서 세 팀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첫 번째로 무대에 오른 크리에이티브 그룹 '생동감'은 빛과 전통예술을 조화시킨 독특한 미디어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전통 춤사위를 연상케 하는 화려한 율동이 트렌디하고 강렬한 빛을 매개로 짙은 어둠 속에서 꿈틀대는 모습에 청중 모두 매료되었다.



두 번째 공연은 다국적 K-pop 그룹 '엑신'이었다. 제11회 대한민국을 빛낸 신인 대상에서 신인상을 받은 바 있는 걸그룹 엑신은 화려한 춤과 열정적인 에너지로 무대를 꽉 채워주었다. 마지막 무대는 7세~16세의 다문화가정 자녀로 구성된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이었다. 여러 국가의 전통의상을 입고 나온 밝고 행복한 모습의 합창단은 또랑또랑 해맑은 목소리로 관객들에게 흐뭇한 미소를 선사했다.

끝으로 참가자 모두가 자국 국기를 들고 단체 사진을 촬영하며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조화와 '통합'이라는 세계인의 날의 의미를 사진 속에 아로새기는 멋진 장면이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기념식 현장은 웃음소리와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국민, 외국인 너나 할 것 없이 즐겁고 행복한 모습에서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길 행복한 대한민국의 앞날을 기대해본다. 



전국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 경연대회 성황리에 개최

지난 5월 14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전국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 경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서울청)의 주최로 개최된 이날 대회에는 전국 38개 대학에서 출전한 73개 팀 중 예선을 통과한 12개 팀이 열정적인 공연을 선보였다. 한국방송회관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멕시코 출신 크리스티안 부르고스와 서울청 직원의 공동사회로 시작했다. 서울청 배상업 청장, 서울청 사회통합협의회 회장권, 전연욱 부회장,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구본준 소장, 한국이민재단 안승열 사무총장이 내빈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대회는 서울청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들의 전통의상 패션쇼로 시작되었다. 모로코, 몰도바, 베트남, 볼리비아, 영국, 중국, 우크라이나, 일본, 키르기스스탄의 전통의상으로 꾸며진 이색적인 패션쇼였다. 이후 진행된 경연에서는 세계 각국의 유학생들이 다양한 재주를 뽐내며 특별한 무대를 선보였다. K-POP 댄스 커버, 노래, 영상 제작, 성악, 전통춤, 미술과 연주에 이르기까지 열정적이고 치열한 무대가 이어졌다.

본선 참가자들의 무대가 끝난 뒤에는 6개 부서 25명으로 구성된 서울청 직원 합창단의 축하 공연이 펼쳐졌다. 합창단은 '손에 손잡고'와 '짚이야'를 유쾌하게 소화해 웃음을 선사했다.

배상업 청장은 "연예인 못지않은 아주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무대에 크게 감동했다.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이 한국에서 마음껏 끼도 발산하고 한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많이 해주기를 부탁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심사위원 대표이자 서울청 사회통합위원, 더 뮤즈 오페라단 단장인 이정은 위원은 "국내에 체류하는 유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대회의 수준도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다. 앞으로도 더욱 뛰어난 실력을 갖춘 유학생들이 등장하길 바란다"는 심사 총평을 남겼다.

대망의 시상식, 200만 원 상금의 주인공이 될 최우수상은 고려대와 서경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유학생으로 구성된 SEASON 팀이 차지했다. SEASON 팀은 스트레이 키즈 커버 댄스를 선보였다. K-POP을 좋아해 모였다는 이들은 "이렇게 행복한 대회를 개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즐거운 한국 생활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히며 더불어 부모님과 친구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했다. 우수상은 아이유의 '밤편지'를 열창한 네팔 출신의 우송대 모날리사, 장려상은 에스파의 '드라마'를 부른 중국 출신 유학생으로 구성된 클로렐라가 수상했다.





출입국 스포츠맨들의 모임! ♡ ♡



미국 실리콘밸리의 '일잘러'들은 성공적인 직장생활과 새로운 도전을 위해 체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호회 활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한다고 한다. 여기 체력 관리라면 남부럽지 않은 출입국 일잘러들이 있다. 사무실을 벗어나면 만능 스포츠맨이 되어 그라운드를 누비는 그들의 특별한 모임을 소개한다.



체력을 기르지 않으면 적당한 노력에서도 안주하게 될 것이고, 체력을 길러야 역치가 늘어나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살빼고 싶은 체력을 길러라 <드라마 '미생' 중>



야구동호회 저스티스 (JUSTICE)



2005년 창단 이래 20년 가까이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야구 동호회 '저스티스(JUSTICE)'. 법무부 소속 야구팀이라는 대표성을 담아 공모를 통해 정한 팀명이다. 저스티스는 인천국제공항리그에서 활동하는 구단으로 연간 시즌 경기는 물론, 자체 청백전 및 중앙부처 야구대회에 참가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리그에서 항상 상위권을 달리는 실력과 야구단이다. 지금까지 2번의 준우승과 6번의 우승을 거머쥐었다. 올해도 4승 2패를 기록하며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다. 한여름 무더위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저스티스'의 경기 현장을 찾아 영종도 야구장으로 떠나보자.



축구동호회 화보FC!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첫 번째 동호회 화보FC. 2023년 8월 첫 활동을 시작하여 이제 1년 차에 접어든 신생 동호회이다. 성별, 실력, 나이, 직급을 불문한 3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 경기를 하고 있으며, 법무부 직업훈련교도소, 화성시청, 소방서 등 화성시 인근 조기 축구팀과 주기적으로 친선 시합을 하며 실력을 키우고 있다. 축구에 대한 열정! 바로 화보FC의 유일한 가입 조건이다. 어스름이 내린 월요일 저녁, 축구복으로 갈아입고 경기장 조명을 받으며 골을 향해 힘껏 내달리는 화보FC 단원들의 모습이 어느 프로 선수 못지않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전수범 주무관

입사하자마자 가입하여 어느덧 12년 차 저스티스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구를 워낙 좋아해 사회인 야구단에서 활동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수습 기간 간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한 선배님이 수줍게 건네주신 한 마디. “야구.. 좋아하세요?” 그때가 ‘저스티스’와 저의 첫 만남입니다. 모든 리그 일정이 끝나는 11월에 맞춰 선후배 친선전이 열립니다. 비록 예전의 몸은 아닐지라도 젊은 날 열정 그대로 동료들과 부대끼며 경기에 온 힘을 쏟아부었던 선배님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여전히 몽클해집니다. 땀에 흠뻑 젖어 함께 뛰다 보면 서로에게서 느껴지는 끈끈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처럼 야구에 관심은 많지만, 선뜻 시작하기 어렵다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부담없이 ‘저스티스’ 문을 두드리세요! 걱정하는 고된 단체훈련은 없습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 최요셉 주무관

저는 올해 초 ‘저스티스’에 합류한 새내기 단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손을 잡고 야구장을 자주 다녔어요. 자연스럽게 야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이 되었습니다. 야구에 대한 저의 남다른 열정을 알아봐 주신 배덕환 감독님의 권유로 ‘저스티스’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4월에 열린 제 첫 경기 기억에 많이 남아요. 한 점 차로 아쉽게 패배했지만 그만큼 막상막하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기에 더 잘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그 경기 이후로 야구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평일에는 바쁜 일정으로 개인 연습을 못하는 대신 프로 야구 경기 하이라이트는 꼬박꼬박 챙겨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요. 무엇보다 ‘저스티스’ 활동을 하면서 주말이 풍성해졌어요. 예전엔 무료하게 시간을 보냈다면 야구를 시작하면서는 경기 준비를 위해 일찍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체력도 확실히 좋아진 걸 느낍니다. 저스티스 막내에서 쑥쑥 성장해 핵심 멤버가 되고 싶어요. 무엇보다 선후배님들과 오래도록 함께 야구하고 싶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고성훈 주무관

저는 ‘저스티스’의 안방마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에서는 포수이자 동호회 살림을 도맡고 있는 총무입니다. 신규자 교육을 받을 때, 강사로 오셨던 고동중 서기관님의 권유로 ‘저스티스’에 첫발을 들이게 되었어요. 2018년과 2022년에 개최되었던 선후배 교류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OB팀과 YB팀으로 나누어 모두가 정말 순수하게 경기에만 심취했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저스티스’ 활동을 하면서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마음 맞는 선후배를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야구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 아니라 업무로 고민이 있을 때 가까이서 다독여주시는 선배님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든든합니다. ‘저스티스’ 모든 단원들이 부상없이 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3개 팀이 공동 1위를 달리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요. 우승을 통해 재도약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저스티스’ 파이팅!





화성외국인보호소 사범과 손가영 주무관

저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첫 발령을 받아 일한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화보FC에 가입한 지는 반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으로 모두 하나 됨을 느꼈던 그 순간이 축구에 대한 제 첫 기억입니다. 너무나도 강렬했던 그 기억에 새벽까지 뜯논으로 유럽축구를 지켜 보는 열혈 팬이 되었습니다. 관사에서 지루한 일상을 이어가던 중 화보FC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직원들도 알아가고 체력도 기를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얼른 가입했죠. 경기장 섭외를 위해 발로 뛰기도 하고 소리지르거나 응원을 보내기도 합니다. TV로 보는 경기와 달리 경기장에서 직접 느끼는 현장감은 대단해요. 제가 속한 사범과는 협업이 많은데 동호회 활동으로 돈독해진 팀워크 덕분에 사무실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모두 다치지 않고 지금처럼 오래오래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보FC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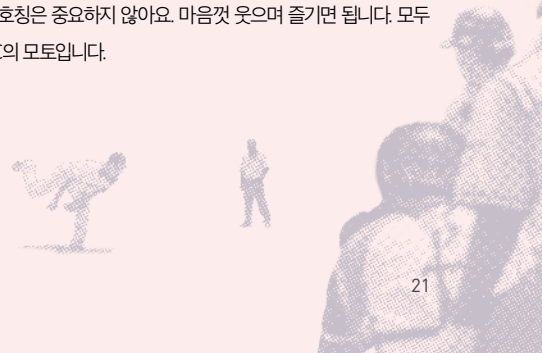
화성외국인보호소 사범과 박범하 주무관

직원들과 풋살 경기하던 어느 날, 문득 본격적인 축구팀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스포츠도 즐기고 체력도 키우자는 취지에서 시작하여 화보FC 창단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했어요. 특히 축구는 라인을 맞추는 수비나 패스 플레이처럼 11명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팀 스포츠라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낍니다. 대학교 때 아마추어팀 주장을 맡아 전국대회에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팀원 간의 화합과 희열을 직장 동료와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화보FC를 만들게 된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신체 활동이 필요한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축구로 단련된 체력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소속 부서를 뛰어넘어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큰 수확입니다. 창단 멤버로서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나아가 출입국을 대표하는 축구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관리과 김종필 주무관

저는 화보FC 창단멤버로 참여하여 그라운드를 뛰고 있습니다. 20~30대 젊은 동료들과 어울려 축구를 한다는 게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50대가 되기 전에 마지막 열정을 불태워보자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축구는 수십 명의 인원이 동글동글한 작은 공 하나에 집중해 화합하는 신비로운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바쁜 일정으로 팀 연습을 자주 하기 어려울 때는 모든 팀원이 짬을 내어 개인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연습해 나가는 거죠. 화보FC 활동을 하면서 체력 하나만큼은 30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축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화보FC로 연락주세요. 나이, 계급, 호칭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껏 웃으며 즐기면 됩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동호회, 화보FC의 모토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꿈꿔요

베트남 출신 이두연 주무관

전북 최초 외국인 출신 공무원이 된 익산시청 여성가족과 이두연 주무관. 2007년 결혼과 동시에 한국에 정착한 그녀는 여성가족부 가족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공직자로서 보람찬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 비롯한 다문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정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나는 전북 최초 외국인 공무원으로 익산시청에서 다문화 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으로 베트남 호찌민 외국어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했다. 친정아버지의 권유로 한국어과를 선택했고, 아름다운 한국 문화와 한국어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졸업 후, 베트남에 소재한 한국 무역회사에 취직했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2007년 결혼하면서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다. 결혼 이후 원광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하며 본격적인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남편만 믿고 타지에서 시작한 결혼생활이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시부모님과 주변인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베트남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열심히 공부했기에 어색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한국 음식이 잘 맞아서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활동적인 내가 집에서만 지내는 것이 힘들어 보였는지 남편은 나를 위해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발로 뛰어 알아봐 주었다. 남편의 노력 덕분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익산시가족센터에서 통·번역사로 활동했고 익산 경찰청, 전주 지방법원, 여성신문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다 보니 어느덧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통·번역사로 일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결혼이주여성들 만나 서로의 한국 생활을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공유했다. 나와 달리 대부분이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고 힘들어하는 그녀들을 보며 '내가 힘이 되어 보자고 결심했다.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정봉사단'을 만들어 운영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일이 나에게도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다. 바로 2011년 8월 익산시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전북 1호 결혼이주여성 출신 공무원으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신기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던 순간도 잠시 '공직자', '공무원'이라는 단어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을 하루에도 몇 번씩 되풀이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 기왕이면 내가 해보자는 마음으로 일을 차근차근 배워나갔다. 한국어를 전공했기에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처음 접하는 행정업무는 너무나도 낯설었고 전문용어가 수두룩한 공문서를 접하며 식은땀이 마를 날이 없었다. 다행히도 동료들이 든든한 지원자를 자처해주었고 '다문화가정봉사단'에서 했던 업무와도 연관성이 많아 어느덧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외국인 부부 상담을 하던 중 동료 한 분이 내 사례를 책자로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했고 많은 결혼이주여성의 도움을 받아 2012년 1월 '익산생활 알고나면 정말 쉬워요'란 제목으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올해 5월에는 여성가족부 주관 '2024년 가정의 달 기념 가족정책 유공 정부 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다른 업무에도 익숙해지면서 지금은 다문화가족지원 행정 업무와 더불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관리, 국내·국제결혼중개업 관리 등 다양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는 민원 대응도 곧잘 해내지만 처음에는 당황스런 순간의 연속이었다. 베트남에서는 민원인들이 공무원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다. 외국인이라고 민원인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험한 말을 들은 적도 많았다. 상처받아 움츠러들기보다 외국인이지만 그 누구 못지않게 업무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다짐했다. 민원 대응법부터 관련 법령을 하나씩 숙지해나가며 꾸준함을 무기로 13년간 공직생활에서 쌓아온 노하우는 현재 나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제는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들에게 지적받는 일이 거의 없고 오히려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행복한 공직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공직자로서 나의 모습도 사랑하지만, 나는 어느 한국 엄마들과 다르지 않게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아직 한국 사회에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 있지만, 재한 외국인 수가 날로 증가하면서 문화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기에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인식에도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차별로 상처받지 않고堂堂하게 한국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북 최초 외국인 출신 공무원으로서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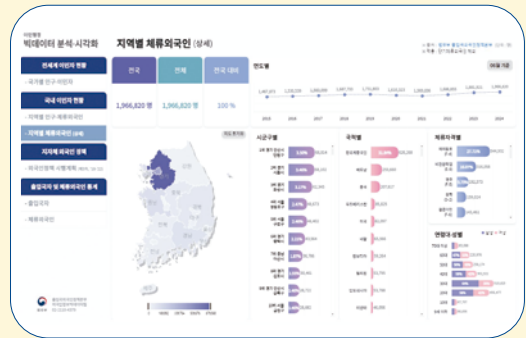
이민 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 제공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는 대량의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해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법무부는 공공·민간 분야의 '데이터 기반 외국인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세계 이민자 현황과 국내 이민자 현황, 지역별 외국인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빅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하이코리아 누리집(<https://www.hikorea.go.kr>) 정보광장 메뉴에서 2024년 3월 11일부터 제공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를 살펴본다.

이민 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국제연합(UN) 등에서 발표하는 관련 통계와 주요 정책추진 현황 데이터를 지도와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연도별, 국가별, 지역별 등 다양한 검색 조건을 조합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역별 분포와 변화는 물론, 관련된 출입국·이민정책 추진현황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는 앞으로도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추가 개발하여 관련 부처 및 국민과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01

전세계 이민자 현황

국가별 국민 인구수, 이민자 수, 연령대 및 성별 분포를 5년 단위 (1990~2020년)로 분석, 시각화해 보여준다. 데이터는 UN 경제 사회국 자체 집계·발표한 추정치를 기반으로 한다.

02

국내 이민자 현황

국내 시도별 국민과 외국인 수, 시군구별 외국인 비율은 물론, 연령대와 성별 분포, 거주 외국인의 국적과 체류자격 등을 월 단위로 분석해 보여준다. 통계청 주민등록통계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03

지역별 외국인 정책

국내 시도/시군구별 제3차 외국인정책 시행계획(2018~2022년) 사업과제 수와 사업내용, 예산계획 등을 1년 단위로 분석해 보여준다.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세워짐에 따라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04

출입국·외국인 통계

매월 한글파일로 공개하는 출입국심사, 체류외국인 관련 통계를 시각화한다. 국민·외국인 출입국자 수, 공항만별 출입국자 수, 외국인 입국자 추이와 더불어 시도별 단기·등록·거소 체류 외국인 수가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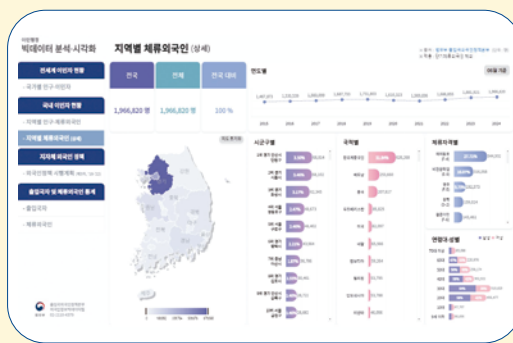
Big Data Analysis and Visualization Service for Immigration Administration



Big data analysis, a pivotal technology driv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volves collecting and analyzing vast amounts of structured and unstructured data. The Ministry of Justice has implemented visualization tools to offer a clear overview of immigration-related data, including foreign residents in Korea and world migrants, as well as regional immigration policies. This aids in formulating data-driven policies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Let's take a look at the "Big Data Analysis and Visualization Service for Immigration Administration" that the KIS launched on March 11, 2024, on the HiKorea website (hikorea.go.kr).

Big Data Analysis and Visualization Service for Immigration Administration

This service is designed to analyze immigration-related data, including major policies and statistics published by the KIS and other relevant agencies like the United Nations, and to visualize this data through maps and graphs. Users can extract data by setting up customized search conditions such as year, nation, and region, enabling them to quickly understand trends in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foreign settlements and related policy implementations. The Ministry of Justice plans to diversify its big data analysis models to share valuable insights with relevant ministries and the public.



01

Global Immigr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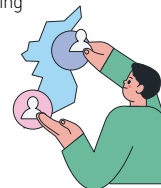
A five-year visual analysis of data by nation, including national population, number of immigrants, age, and gender from 1990 to 2020. The data are based on estimates produced and pu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02

Foreign Residents in Korea

A monthly visual analysis of data by administrative unit, gender, nationality, and visa type, including national population and the percentage of foreign nationals relative to Korean nationals. The data are based on statistics published by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and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03

Regional Immigration Policies

A yearly visual analysis of data by administrative unit, including the number of projects, project details, and budget plan for the Third Master Plan for Immigration Policy (2018-2022). With the Fourth Master Plan currently in place, an updated version is scheduled to be available.



04

Immigration Statistics

A monthly visual analysis of data, including the number of Korean and non-national passengers entering and exiting the country by port, trends in foreign arrivals, foreign residents by visa type, and the administrative units of their residency.



KIS NEWS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4 Summer Vol. 68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 현판식 개최

법무부는 지난 4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를 발족했다. 「지원 TF」는 농·어촌 인력 수요 전망 및 분석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정확한 수요 기반에 따른 계절근로자 등 농·어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지원하고 제도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1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하고,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동남아 3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 비자 발급대상 확대 시범운영 기간 2년 연장

법무부는 '23. 6. 27부터 1년간 동남아 관광객의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자 신청이 간소화된 단체관광 비자의 발급 대상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일반 여행객까지 확대하여 시범 운영 해왔다. 법무부는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한편,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정식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관계부처 및 관광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한공관원 대상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 개최

법무부는 지난 5월 13일 대한민국 체류·사증 정책을 소개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주한공관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15개국 공관의 노무관 등 영사들이 참석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및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제도 등 대한민국 체류·사증 정책을 이해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과학기술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 위해 연구유학생(D-2-5), 연구원(E-3) 비자 확대

법무부는 과학기술분야의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유학생(D-2-5), 연구원(E-3)의 비자 대상을 확대했다.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대학*의 경우,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을 연구유학생(D-2-5)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 학술논문 저자***의 경우 경력이 없더라도 바로 연구원(E-3)으로 초청할 수 있게 하였다.

* 영국 타임즈 고등교육 세계 평판도 랭킹(THE Ranking) 200대 대학 또는 영국 평가기관 큐에스(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국내대학

** 영국 타임즈 고등교육 세계 평판도 랭킹(THE Ranking) 200대 대학 또는 영국 평가기관 큐에스(QS)의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석사학위 소지자

*** 논문 인용지수를 산출하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예술·인문학 논문색인(A&HCI, Arts and Humanities Citation Index) 등재 논문의 주저자, 공저자, 교신저자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이 알려주는
한국생활 필수 정보

안전한 한국 생활을 위한 첫걸음, 소방안전 교육에 참여하세요!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입니다. 모국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더욱 큰 위협과 공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 비상 상황에서 나와 우리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화재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꾸준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한국 생활을 위한 첫걸음!

소방안전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소방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이 직접 체험에 나섰습니다.



안전에는 국경이 없다



① 9개국어*로 제작된 「모두가 알아야 할 소방안전상식」 교육영상(경기도소방재난본부 유튜브 채널)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네팔, 러시아, 몽골, 파키스탄, 라오스

② 5개국어 10종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리플릿 소개 및 다운로드 안내

- 경기도소방재난본부(<https://119.gg.go.kr/>) ▶ 국민행동요령 ▶ 다국어버전



중국어로 제작된
모두가 알아야 할
소방안전상식 QR 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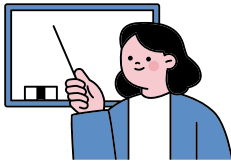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살이 10년 차 미국에서 온 조단 브라운입니다. 'Practice makes perfect'라는 영어 속담 들어보셨나요? '꾸준한 연습으로 완벽해진다'는 뜻으로 '노력'과 '훈련'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데요. 꾸준히 소방안전 교육에 참여한다면 재난 상황이 갑자기 닥쳤을 때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키울 수 있겠죠? 소방관을 꿈꾸던 어린 시절의 설렌 마음을 안고 소방안전체험교육을 위해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으로 떠나 보겠습니다.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은 어떤 곳인가요?

외국인 누구나 재난 상황을 실제처럼 체험하면서 위기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어린이 안전, 화재, 교통, 산업안전 등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임누리 강사님과 함께 소방안전체험교육을 시작합니다.



STEP

체험 하나 01



소방 역사 먼저 알고 가요! <역사 사료관>

● 고려시대부터 사용한 대나무 소화기와 1900년대 초중반 사용된 소화기인 경편즉통, 과거 소방서에서 직접 작성한 공문서 등 119점에 이르는 경기도소방역사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내 하나뿐인 목제 수총기는 가장 오래된 기계식 소방 장비로 114년 전 제작되었으며, 소방유물 중 처음으로 시도등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체험
볼 02



화재 신고 및 주변에 알리기

-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야!” 하고 크게 외쳐서 주위에 알립니다. 안전한 곳에 대피한 후엔 119를 눌러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는 화재 발생 위치나 주소를 알려주면 되는데, 주소를 모를 때는 주변 큰 건물이나 간판, 전봇대를 보고 위치를 설명합니다. 신고 접수자가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말고 주변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 한국말을 못하거나 서툴더라도 119로 신고하면 통역서비스가 제공되니 신중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체험
셋 03



화재발생 대피방법

- 불이 나면 “불이야!”를 크게 여러번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화재를 주변에 알리고 신속히 계단으로 대피합니다. 연기는 특성상 위에서부터 쌓여 내려오니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움직이세요.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래층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옥상이나 외부공간으로 대피해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 계단을 통해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높은 층에서는 완강기라는 피난기구를 사용합니다. 속도조절기와 벨트를 꺼내 지지대 고리에 속도조절기 후크를 걸고 나사를 조입니다. 지지대 고리를 창밖으로 돌리고, 줄이 감겨 있는 띠를 창밖으로 던지세요. 가슴벨트를 거드랑이 바로 밑에 오도록 꺼서 조이고 창밖으로 다리부터 하나씩 천천히 나갑니다. 하강하는 동안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손을 W자로 만들어 벽을 짚으면서 내려오세요.

체험
넷 04



소화기·소화전 올바르게 사용하기

- 작은 불에는 소화기를 사용합니다.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안전핀을 뽑고, 호스는 불이 난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손잡이를 꼭 움켜잡고 빗자루로 쓸 듯이 골고루 뿌려야 합니다. 밖에서는 바람을 등지고, 건물 안에서는 탈출할 문을 등지고 사용합니다.
- 소화전은 발생 초기의 불이 큰불로 커지기 전에 사용합니다. 소화전 함의 문을 열고 호스를 빼고 노즐을 잡은 뒤 시계반대 방향으로 밸브를 돌리고 불을 향해 쏘면 됩니다. 만약 불이 바로 꺼지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체험
다섯 05



심폐소생술 실습

- 의식이 없는 환자를 발견하면 어깨를 두드려 환자의 의식과 호흡 등 반응을 확인하고 119로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신고는 주위 사람을 꼭 집어 부탁하세요. 환자는 평평하고 단단한 바닥에 놓힌 뒤, 가슴압박을 실시합니다. 가슴압박은 분당 100~120회 속도와, 5cm의 깊이로 30회 실시하고 인공호흡은 2회 실시해 주세요. 인공호흡이 어려운 경우 가슴압박만 실시해도 됩니다.



대한민국 “119소방”에 대해 궁금해요~!



Q 119에는 언제 신고하나요?

A 불이 났거나 불 난 것을 봤을 때,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크게 다쳐서 긴급하게 병원을 가야할 때, 심정지가 온 사람을 발견했을 때, 폭우 또는 산사태 발생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가스누출교통사고 등 위급상황에서 안전조치 및 도움이 필요할 때 119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달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19신고’ 앱 설치 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애플)에서 ‘119신고’ 검색 후 앱 다운로드(설치)

Q 소방차, 구급차, 헬기를 부르면 돈을 내나요?

A 대한민국에서 119서비스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신고하세요.

Q 화재 피해로 막막합니다. 도움 받을 곳이 있나요?

A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화재피해주민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119로 전화해 물어보세요. 피해복구와 생활안전 지원을 도와드리겠습니다.

Q 한국어를 몰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119에 신고하면 통역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세요. 그리고 119로 문자 신고는 물론 영상통화나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기억해 주세요.

Q 어디에서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A 경기 공유서비스 119소방안전교육 예약시스템(<https://share.gg.go.kr>)에서 신청하시면 무료로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세요.

*통합검색창 : 경기 공유서비스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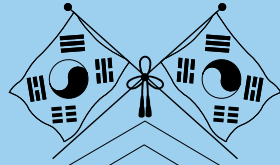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임누리 강사

“ 현대사회로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재난이 발생하고 그 재난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항상 사전에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에서는 다양한 안전사고 및 재난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현지 소방관들과 함께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이야기 나누며 안전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은 어린이안전동화마을 · 생활안전 · 교통안전 · 재난안전 등 9개 존 63개 테마를 갖추고 누구에게나 체험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재한 외국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https://ggsec.gg.go.kr/> 031-288-1004
외국어로 번역된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 보다 많은 재난 대처법은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119.gg.go.kr/>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흔이 깃든 역사 마을

● 광주 고려인마을

GWANGJU - KORYO PEOPLE VILLAGE



일제강점기,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일념으로 가산을 정리한 후 가족들과 함께 정든 고향을 뒤로하고 러시아 연해주와 북간도로 떠났던 이들이 있다. 이들은 머나먼 이국에서 치열한 독립운동을 전개했지만, 1937년 스탈린의 민족 강제 이주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중앙아시아 황무지로 버려지고 말았다. 구소련이 해체된 이후, 차별과 박해에 시달린 이들, 고려인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다. 약 7,000명의 고려인이 거주하며 이색적인 풍경을 자아내는 곳,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광주 고려인 마을을 소개한다.



고려인종합지원센터

2015년 고려인 마을이 조성된 지 10년 만에 고려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줄 고려인종합지원센터가 개소했다. 2005년 고려인 3~4가정이 광산구 월곡동에 정착한 지 정확히 10년째 되는 해였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 활동으로 설치된 고려인종합지원센터는 취업, 산업재해, 국적취득 관련 상담과 한국어 교육, 자녀보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GBS 고려방송도 진행한다. 고려인종합지원센터는 고려인들을 위한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며 다양한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있다.

- 문의 : 062-961-1925
- 주소 : 광산구 산정공원로 28번길 35



다모아 어린이공원 홍범도 공원

다모아 어린이공원은 홍범도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광주 고려인마을의 대표 명소다. 2021년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된 일을 기념하기 위해 2022년부터 계획을 세워 2023년에 본격적으로 조성된 공원이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홍범도 공원의 홍상을 본떠 만든 1.4m 높이의 홍상이 당당한 모습으로 공원 중앙을 차지하고 있다. 홍범도 장군의 생애와 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공원이지만, 평시에는 인근 고려인마을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주민들의 쉼터로 기능하고 있다. 조국의 독립과 평화로운 일상을 바랐던 홍범도 장군의 애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 문의 : 062-961-1925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의 자부심 - 홍범도 장군

평양 출생의 홍범도 장군은 1895년 명성황후 시해에 항거한 을미의병과 1907년 정미의병에 참여하며 의병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일제에 국권을 침탈당하자 1911년 연해주로 망명,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참여하며 무장독립투쟁을 펼쳤다. 신출귀몰한 전략으로 '나르는 홍범도'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나, 1937년 고려인 강제 이주 때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 당했고, 1943년 머나먼 미국에서 숨지고 말았다. 고려인에게 홍범도 장군은 자신들과 같은 길을 걷은 동반자이자 자부심으로 남아있다.





월곡고려인문화관 '결'

월곡고려인문화관 '결'은 고려인마을에 자리한 2층의 복합문화공간이다. 엄혹한 세월을 견디며 살아온 고려인 관련 사료와 유물들이 전시된 고려인역사유물전시관 '숨결'과 지역주민과 이주민이 교류하는 주민소통방 '금결'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관의 외부를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 타일벽화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문 빅토르 화가가 기증한 작품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1층의 상설전시실에서는 고려인 160년의 역사가 연대기적으로 전시되어 있으며 2층의 국가지정기록물전시실에서는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고려인 관련 기록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 문의 : 062-955-1925~6
- 이용시간 : 10:00~17:00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50번길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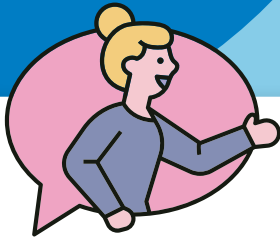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

올해 5월 말, 월곡고려인문화관은 개관 3주년과 고려인 이주 16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획전과 행사를 개최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고려인의 생생한 삶의 기록을 한데 모은 '고려인의 발자취와 삶의 기록' 사진전이 개최되었고, 월곡고려인문화관에서도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획전'과 '고려인 한글 문학기평론가 정상진 특별전을 내년 2월까지 개최한다. 올해 9월에는 창작 고려인 뮤지컬, '나는 고려인이다'를 무대에 세울 예정이다.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소식을 만나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SNS 소식



#1

대한민국 국적취득 -증명서류 관련 안내-

facebook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우리부에서 발급하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증명서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이하 "국적증서")를 수여 받은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한편 우리부는 귀화자 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증명서류로 국적증서 외에 '국적취득사실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국적취득사실증명서는 인터넷 사이트'정부24' 또는 가까운 출입국관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적취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법 시행규칙 제17조(귀화서의 발급) ① 청정원은 귀화허가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범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사람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증명 서류로 국적증서 외에 '국적취득사실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SNS 채널을 소개합니다. 공식 페이스북·유튜브·카카오채널에서 본부와 출입국·외국인 정책 소식을 가장 쉽고 빠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2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 미담사례집 발간

YouTube



재한외국인들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모아 만든 미담사례집을 소개합니다.

페이스북

@immigration.kr

유튜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카카오채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SNS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 카드뉴스 등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KIS 1345’로 물어보세요!



출입국·외국인정책에 대한 궁금한 점을 알려드려요

Q 저는 한국에서 지내다 한국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 얼마 전 귀화 신청을 했는데요. 저의 귀화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A '24. 7. 2(화)부터 외국인종합안내포털(하이코리아)에서 국적 심사(귀화 및 국적회복 신청)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국적 심사 진행상황 조회 시스템>을 신설 하였습니다. 하이코리아(hikorea.go.kr) 웹사이트를 방문해 로그인하고 해당 메뉴(정보조회→국적 심사 진행상황 조회)를 클릭하셔서 필요 정보(귀화 및 국적회복 접수 번호, 여권번호, 생년월일)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Q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데 귀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바로 출국이 가능할까요?

A 자진출국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국내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당일 출국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전신고 또는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신고 및 사범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Q 친구가 외국인보호소에 있습니다. 보호 중인 외국인은 어떻게 출국하게 되나요?

A 외국인이 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하게 되면 보호외국인별 담당 직원이 배정됩니다. 직원은 면담을 통해 보호외국인의 고충을 파악하고 보호외국인은 출국준비가 완료되면 본국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Q 부모님의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이 필요합니다. 공항에서 부모님을 대신해 제가 출입국 사실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A 성인 가족(성년 자녀 포함)에 대한 증명을 대신하여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명 발급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가 본인의 신분증, 발급대상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 발급대상자의 여권 사본을 가지고 출입국서비스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명을 대신하여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본인의 신분증,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특정)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출입국서비스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자진출국 사전신고제

- ▶ **온라인 사전신고** | 출국일 기준 3일~15일 전 온라인 hikorea.go.kr 사이트에서 자진출국 사전신고 후 출국 당일에 공항만에서 사범심사를 받아야 함
* 단,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신고만 가능
- ▶ **방문신고 및 사범심사** |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15일(공휴일 포함) 전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범심사를 받아야 함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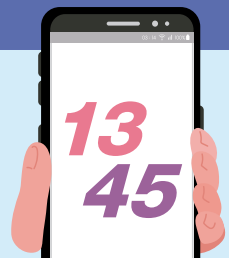
재한외국인의 행정·생활정보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상담시간 : 평일 09:00~22:00 (한국어 포함 20개국 안내 / 야간 18:00 이후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안내 운영)

대표전화

일반전화, 휴대폰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45로 연결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4 Summer
Vol. 68



EVENT #1

1. <공존하는 시선> 공모

<공존>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사진과 함께 사진 설명을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선정을 통해 <공존하는 시선> 코너에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도 드립니다.

- 참여 기간** 2024년 8월 1일(목) ~ 2024년 9월 13일(금)
- 참가 대상**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귀화자 포함) 누구나 가능
- 공모 주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귀화자 포함)이 바라보고 느낀 한국의 전통 또는 아름다운 모습을 촬영한 사진(풍경, 인물, 사물 모두 가능)
※ 타인 사진(작품) 제출에 따른 저작권 위반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인물사진은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으니 사전동의를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방법** (작품) 사진 파일(JPG파일, 가로 300dpi 이상, 고화질 우대)
(추가정보 기재) 이름, 연락처, 작품 제목 및 설명, 촬영 날짜
- 참여 방법** kimonkey2@hanmail.net / <공존> 편집실
- 당첨자 발표** 2024년 9월 19일 개별 통보
- 이벤트 혜택** 2024년 <공존> 가을호 '공존하는 시선' 코너 게재 및 소정의 상품 지급

EVENT #2

2. 독자 의견

2024년 <공존> 여름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재미있는 콘텐츠, 유용한 정보, 아쉬웠던 점 모두 좋습니다. <공존>은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참여 기간** 2024년 8월 1일(목) ~ 2024년 8월 16일(금)
- 참여 방법**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 계정 or 유튜브 계정을 팔로우(구독)
 2. 페이스북 공존 이벤트 게시글 or 유튜브 <공존> 티저영상 게시물에 '좋아요'
 3.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경품 이벤트** 독자 의견을 주신 분들 중 5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당첨자 발표** 2024년 8월 21일(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세요!

EVENT #3

3. 퀴즈 타임

QR코드를 스캔해 퀴즈 정답을 맞춰주세요.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Q.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국제연합(UN) 등에서 발표하는 관련 통계와 주요 정책추진 현황 데이터를 지도와 그래프로 보여주는 서비스?

- ① 이민 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 ② 온라인 민원서비스
- ③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④ 외국인 통합 행정서비스

빠르고 간편한 독자 퀴즈 참여 방법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서 <공존>에 관한 독자 의견과 퀴즈 정답을 남기면 참여 완료!





국적 심사 진행 상황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귀화 및 국적회복 신청의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적심사 진행 상황을 심사 단계별로 쉽게 확인하세요!



조회방법

- 1 하이코리아(hikorea.go.kr) 로그인
- 2 정보조회 -> 국적 심사 진행 상황 조회
- 3 귀화 및 국적회복 접수번호,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